

#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임현진(서울대) · 이재열(서울대)

박광민(명지대) · 설동훈(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1. 서론

이 글에서는 삶의 질과 안전에 관한 개념적인 정리를 거쳐 신체적·심리적 안전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안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삶의 질과 연관된 우리사회의 안전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 기존연구의 검토와 분석적 개념화

### (1) 삶의 질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즉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실재’의 측면과 ‘지각’의 측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반면 주관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 혹은 행복감을 측정하였다.

### (2) 안전과 위험

안전(safety)은 위험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안전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이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과 작업하는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안전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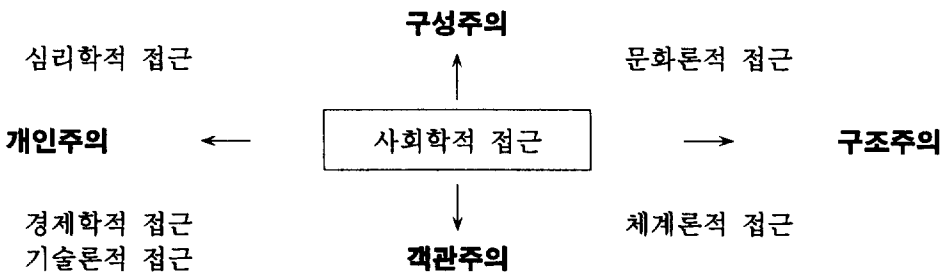
안전을 정의하기 위해 동원되는 개념으로는 위험(hazard), 위험노출정도(risk), 손상(harm

혹은 detriment)등이 있다. 위험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사건으로 정의된다. 손상(harm, detriment)은 위험한 사건의 결과 발생하는 개인적 재난의 정도, 혹은 예측되는 피해의 규모를 의미한다. 위험노출정도(risk)는 일정 기간동안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 혹은 어떤 위험에 노출된 후 손상을 입을 확률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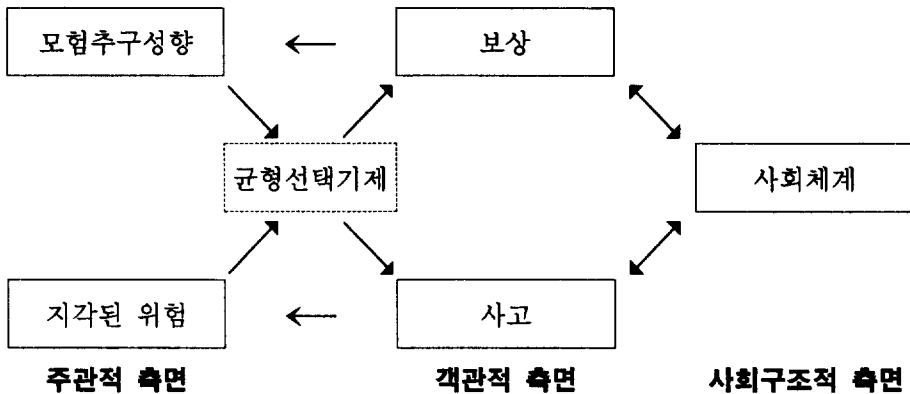
### (3) 기존 연구의 정리

개인과 구조간, 그리고 객관주의적 접근과 주관주의적 접근의 기준을 교차해 기존의 논의들을 분류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전의식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



<그림 3> 위험분석의 통합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 개개인은 나름대로의 균형선택기제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개인의 안전의식은 위험에 대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상호 연관되어 이루어져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안전의식은 개개인의 모험추구성향과 인지된 위험수준으로 구성된다. 모험추구성향은 개인에 따라 매우 상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모험추구성향은 보상과의 관련 하에서 그 강도가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어떤 형태의 보상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어떤 형태의 사고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보이는 균형선택의 기제는 위험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간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달리 말하면 보상과 모험추구성향간, 그리고 사고와 지각된 위험간의 관계는 각 개인이 어떠한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이 추구하는 것은 안전의식을 구성하는 다차원성을 이해해야만 위험을 회피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노력을 적도화하고 이에 따른 삶의 질을 측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과 삶의 질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

### 3. 삶의 질의 다차원성과 그 결정요인

#### (1) 삶의 질의 다차원성

삶의 질을 구성하는 측면들을 개념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질의 여러 차원을 분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네 가지 차원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게 묶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① 기본생활: 의식주 및 소득과 관련된 기본적인 차원, ② 안전: 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 건강, ③ 사회성: 가족·친족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④ 자아성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여가 및 문화생활.

삶의 질의 다차원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각 차원별로 상이한 구성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자아성취의 측면에서는 학력이나 소득 등의 객관적인 차원에 따른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에 안전문제나 사회적 교류의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으로 해서, 안전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보장되기 보다는 사회전반적인 안전의 정착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우리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두 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하나는 심리학자 Ed

Diener가 개발한 “보통 때 느끼는 행복감”으로 0(극도로 불행)에서 10(극도로 행복) 사이의 11점 척도이고, 다른 하나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5에 이르는 5점 척도이다. 이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399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합산하여 하나의 복합척도로 구성하였다. 우리는 이 새로운 복합척도를 “전반적 삶의 질”로 부르기로 한다.

<표 2> 삶의 질의 제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변수	기본생활 (요인 1)	안전 (요인 2)	사회성 (요인 3)	자아성취 (요인 4)	공통분산비 (h <sup>2</sup> )
입는 것	<u>0.77952</u>	-0.02630	0.17391	0.17670	0.66981
먹는 것	<u>0.77359</u>	0.08034	0.10255	0.10477	0.62639
주거	<u>0.75765</u>	0.15850	0.14203	0.08116	0.62591
소득	<u>0.49466</u>	0.24215	0.04981	0.39551	0.46223
안전	0.01465	<u>0.87597</u>	0.05433	0.18148	0.70245
건강	0.31327	<u>0.57543</u>	0.31067	-0.02899	0.70887
가족관계	0.15394	0.21371	<u>0.81553</u>	0.10225	0.74492
인간관계	0.17191	0.04028	<u>0.80934</u>	0.26181	0.75475
자아실현	0.12523	0.12566	0.14874	<u>0.80551</u>	0.80342
문화생활	0.17858	0.02106	0.17349	<u>0.80401</u>	0.52661

주: 회전 후의 요인부하값.

## (2) 모험추구성향(propensity to take risks)과 강박증(obsession)

모험추구성향이란 문화적, 심리적 혹은 기타의 요인에 의해 안전보다는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험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6개 항목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은 음주운전, 대학입시, 무단횡단, 신용대여, 날씨에 대한 준비,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을 추구하는 경우를 0,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를 1로 하여 점수화하고, 모험추구성향의 척도는 이러한 값을 단순누적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강박증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행동이나 생각이 계속 반복되며, 이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 증상을 의미한다. 강박행동은 특정한 행동 또는 일련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주로 셈하기, 순서짓기, 만지기, 확인하기, 씻기 등이다. 강박적 행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상황을 이끌거나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도한 경우가 많다.

〈표 5〉 유형별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의 유형	모험추구 성향
저녁회식에서 맥주를 한병정도 마신후 운전해 집에 간다.	0.255
자녀의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안좋아도 재수를 각오하고 소신지원한다	0.333
깊은 밤 지나는 차가 없으면 빨간 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넌다.	0.411
가까운 친구가 요구하면 1000만원을 신용으로 빌려준다	0.413
비율 확률이 50%라도 아침에 우산을 두고 나온다	0.464
앞에 걸릴 확률이 10%일 때 압보험에 들지 않는다	0.484

강박관념의 측정은 Hodgson과 Rachman (1977)이 제작한 것을 조대경(1985)이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강박증 척도로서 의심·확인·지체·청결 등의 네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모두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중 19개를 골라 척도로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강박증 척도의 평균은 4.9이며, 표준편차는 3.40이었다. 이들 집단중 상위와 하위 각 20%에 해당하는 집단과 그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집단을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강박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모험추구성향은 현저히 낮으면서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안전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신이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비강박집단은 정상집단이나 강박집단에 비해 모험추구성향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6〉 강박관념 테스트

항목	응답비
아침에 세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0.092
저녁에 옷을 건다거나 개어 놓느라고 많은 시간을 쓰는 편이다	0.107
병균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중전화의 사용을 꺼린다	0.107
매우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주저하게 된다	0.139
우연히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치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0.146
나는 병균이나 질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편이다	0.182
나는 다른사람들보다 비누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0.186
외출하려고 옷을 입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0.219
동물들 쓰다듬고 나서는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걱정한다	0.219
돈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내 손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0.240
내가 하는 단순한 일상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0.270
내가 갖고 있는 주된 문제점중의 하나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0.324
매사를 제시간에 끝낼 수 없어 일이 늦어진다	0.331
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따르려고 한다	0.357
나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0.374
어떤 일을 매우 주의깊게 했어도 그것이 아주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0.4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매우 엄하게 나를 키우셨다	0.462
편지를 부치기 전에 쓴 것을 몇번씩 확인한다	0.463
어떤 일(가령, 가스렌지, 수도꼭지, 방문, 열쇠잠그는 것 등)을 몇번씩 확인 한다	0.582

<표 7> 강박관념 정도에 따른 집단간 비교

집단	사례수	위험추구성향	불안도평가	피해가능성
비강박집단	134	2.753	3.708	3.029
정상집단	466	2.354	3.888	3.206
강박집단	149	2.099	4.026	3.234
전체	749	2.376	3.883	3.180
F값		7.78***	6.33**	2.64*

\* p<.05; \*\* p<.01; \*\*\* p<.001

주: 모험추구성향은 0에서 6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모험추구성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도평가는 0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가능성은 0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자신이 안전사고의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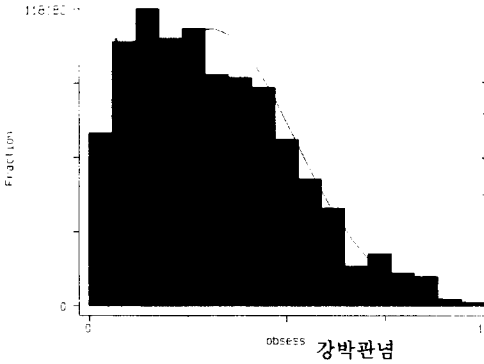
모험추구성향은 강박관념과 부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박관념이 강할수록 모험추구행위는 약해진다. 그러나 <표 9>를 보면, 과거의 사고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험추구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사고경험을 통제하면, 강박관념이 모험추구를 결정하는 효과는 더 강화된다. 이는 한번 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biased distribution hypothesis)을 지지한다(<그림 5> 참조). <표 9>에서는, 모험추구성향이 연령에 반비례하여 젊은 층 특히 20대에 가장 높고 고연령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그림 6> 참조). 이러한 사실은 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젊은 남성미혼자들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준다.

<표 9> 모험추구성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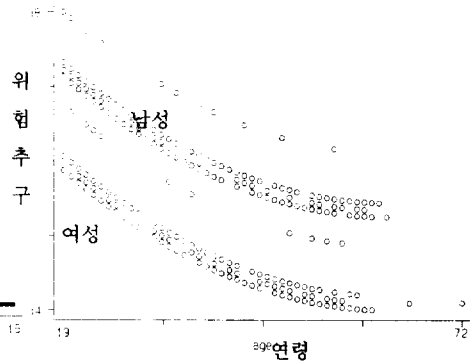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강박관념	-.056***	-.063***	-.033*	-.040**
사고경험		.055**		.037*
남성			.761***	.739***
연령			-.086**	-.094***
연령 <sup>2</sup>			.001*	.001*
상수항	2.649***	2.488***	4.292***	4.350***
R <sup>2</sup>	0.019	0.029	0.162	0.168

\* p<.05; \*\* p<.01; \*\*\* p<.001

<그림 5> 강박관념의 분포



<그림 6> 연령별·성별 위험추구성향



<표 10> 사고유형별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의 평균

구분	과거 사고피해 정도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	사고 원인 구조귀속
도둑	.59	1.59	.52
폭력배	.27	1.44	.82
성추행	.08	1.10	.69
학교폭력	.19	1.19	.84
교통사고	.78	2.09	.55
화재	.14	1.40	.25
가스사고	.03	1.39	.23
유해식품	.31	1.40	.58
질병	.85	1.85	.48
부실공사	.28	1.48	.86
산업재해	.15	1.24	.72
수돗물	.34	1.57	.87
대기오염	.43	1.84	.93
원자력사고	.02	1.03	.94
지진	.04	.93	.97
실업·실직	.34	1.38	.58
전체 평균	.30	1.43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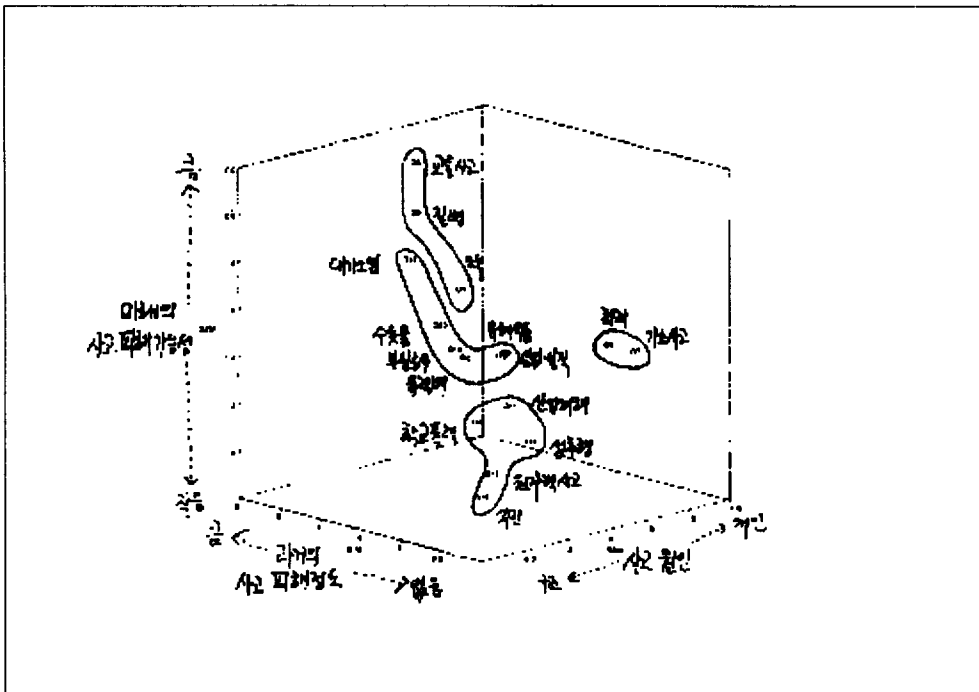
- 주: 1) “과거 사고피해 정도”는 “피해입은 적이 없다”에 0점, “피해는 입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에 1점, “피해규모가 다소 큰 편이었다”에 2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컸다”에 3점, “피해규모가 치명적이었다”에 4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2)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3점, “매우 높다”에 4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3) “사고 원인 구조귀속”은 “피해자의 부주의”에 0점,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1점의 값을 주어 평균을 계산.

### (3) 안전사고

안전사고 경험, 자신이 안전사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삶의 질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많은 종류의 안전사고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집락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행하였다.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 및 사고피해의 원인이라는 세 개 변수를 기준으로 위계적 집락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차원척도기법의 2차원 해를 구하여 좌표평면상의 여러 점으로 표현하였다. 이 결과를 원래의 3차원 평면에 표시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3차원 공간에 나타난 안전사고 종류



세 가지 안전사고의 집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교통사고·질병·도둑으로 구성된 첫째 집락은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와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 모두 높고, 사고원인으로 개인의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점이 거의 비슷하게 언급되는 것이다. “과거 피해 정도와 미래의 피해위험이 모두 가장 높게 인지된 것이지만, 조심하면 그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로 파악할 수 있다. ② 대기오염·수돗물·부실공사·폭력배·유해

식품·실업·지진·원자력사고·성추행·학교폭력·산업재해로 구성된 둘째 집락은 “사고피해를 입은 경험이 거의 없거나 다소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간주된다.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이나 사회체계에 있어 예방은 어렵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가벼운 사고피해 경험이 확산되어 역치(threshold)가 높아진 안전사고”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국가나 사회의 체계적 개입을 원하는 부문으로 이해된다. ③ 화재·가스사고로 구성된 마지막 집락은 과거의 사고피해 정도에 비해 미래의 사고피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사고원인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서 찾는다. “지금까지 사고피해는 별로 없으나 미래의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가능한 사고”로 이해된다. 이 세 집락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계산한 평균값은 <표 11>과 같다.

<표 12>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과거의 안전사고 피해정도가 클수록, 또 사고원인이 구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미래의 안전사고 피해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의 안전사고 피해정도와 안전사고의 원인 평가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원인이 구조 또는 개인에 있는가는 기존 안전사고 피해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세 가지 유형의 안전사고 모두 동일하다.

<표 11>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 복합척도의 평균

	유형 1 (조심하면 피해 극소화)	유형 2 (체계적 개입 필요)	유형 3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
과거	.74	.22	.09
미래	1.84	1.33	1.40
원인	.52	.80	.24

- 주: 1) “과거 사고피해 정도”는 “피해입은 적이 없다”에 0점, “피해는 입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에 1점, “피해규모가 다소 큰 편이었다”에 2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컸다”에 3점, “피해규모가 치명적이었다”에 4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2) “미래 사고피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3점, “매우 높다”에 4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3) “사고 원인 구조귀속”은 “피해자의 부주의”에 0점,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1점의 값을 주어 산술평균을 계산한 복합척도임.

<표 12> 과거 피해정도, 미래 피해가능성, 사고원인 구조귀속 복합척도간 상관계수표

	유형 1		유형 2		유형 3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미래	.261**		.321**		.101*	
원인	.063	.109*	.049	.158**	-.010	.106*

주: 사례수 756명. 양측 검정의 결과 \* < .01 \*\* < .001.

#### (4) 안전과 삶의 질

안전과 삶의 질의 관계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3>과 <표 14>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안전사고 경험'과 '미래의 안전사고 가능성'은 '안전과 관련한 삶의 질'을 낮춘다. 전반적 삶의 질과 사회성 등 다른 측면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약하다. 안전사고 유형 중에서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피해정도가 가장 큰 교통사고·질병·도둑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개인적 노력이나, 자신의 주관적 안전의식 수준 평가는 '안전과 관련한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변수는 '자아성취와 관련된 삶의 질'과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모험추구행위를 기피하며, 안전의식 수준과 강박관념은 별개의 개념이다.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통제가능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안전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있다는 의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안전사고를 개인의 노력으로 예방하려는 태도', 즉 안전의식이 강할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그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

한국사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수록, 다시 말해 지각된 위험의 크기가 작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삶의 질의 네 차원 중 안전에서 이 변수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또 집 주위 환경이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이 낮아진다.

강박관념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경우 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다. 안전사고 피해가 큰 사람이 강박관념이 강하고,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미래의 안전에 대하여 우려한다.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교통사고와 같이 조심하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구조에서 찾는다. 모험추구성향은 미미한 정도지만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호 +).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어서, 모험추구성향은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3> 삶의 질의 각 차원과 안전관련변수 간의 상관계수표

	전반적 삶의 질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안전사고>					
피해정도	-.126**	-.037	-.246***	-.105**	-.002
피해가능성	-.163***	-.061†	-.309***	-.098*	-.046
개인적 노력	.194***	.116**	-.034	.031	.134***
안전의식수준	.115**	.038	.055†	.032	.130***
<사회체계>					
피해원인	-.092*	-.036	-.138***	-.051	-.055†
<지각된 위험>					
안전상태	.161***	.009	.314***	.005	.079*
집주위환경	-.114**	.037	-.230***	-.018	-.082*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성향	-.086†	-.036	.028	-.036	-.056†
강박관념	-.032	.057†	-.160***	-.136***	-.011
<기본속성>					
남성	-.073*	.018	.046	-.069†	-.015
연령	-.079*	-.034	-.054	-.070*	.029
기혼자	-.010	-.052	-.053	-.052	.011
교육년수	.121**	.147***	.027	-.036	.017
가족전체소득	.157***	.183***	-.005	.001	.081*
자가소유	.074*	.170***	.073*	.025	.006

† < .10 \* < .05 \*\* < .01 \*\*\* < .001, N=565

<표 14> 삶의 질의 각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전반적 삶의 질	기본생활	안전	사회성	자아성취
<안전사고>					
피해정도	-.051	-.026	-.119**	-.053	.027
피해가능성	-.126**	-.073	-.190***	-.075	-.021
개인적 노력	.168***	.084†	.033	.066	.125*
안전의식수준	.056	.024	-.020	-.158***	.093*
<사회체계>					
피해원인	-.027	-.011	-.054	-.026	-.030
<지각된 위험>					
안전상태	.105*	-.005	.185***	-.030	.052
집주위환경	-.024	.044	-.101*	.025	-.029
<모험추구성향>					
모험추구성향	-.048	-.029	.012	-.047	-.014
강박관념	-.026	.053	-.063	.025	-.028
<기본속성>					
남성	-.030	.043	.038	-.057	.000
연령	-.163**	-.023	-.082	-.107	.040
기혼자	.099†	.001	.045	-.018	-.043
교육년수	.075	.119*	.037	-.083	.009
가족전체소득	.112**	.132**	-.056	.005	.061
자가소유	.069†	.152***	.079*	.026	-.019
수정R <sup>2</sup>	.115	.066	.174	.029	.019

† < .10 \* < .05 \*\* < .01 \*\*\* < .001, N=565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가 소유 여부'가 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본 연구는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조사를 통한 경험적 분석과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국무총리 안전관리자문위원회. 1995.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Adams, John. 1995. *Risk*, London: UCL Press.
- Flanagan, John C. 1982.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 State of the Ar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3:56-59
- Inkeles, Alex. 1994.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 William V. D'Antonio, Masamichi Sasaki, and Yoshino Yonebayashi (eds.), *Ecology, Society and the Quality of Social Life*,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Markides, Kyriakos S. 1992. "Quality of Life," in Edgar F. Borgatta and Marie L. Borgatta eds., *Encyclopedia of Sociology*, New York: MacMillan.
- Morris, B. R. 1979. *Measuring the Condition of the World's Poor: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New York: Pergamon Press.
- Williamson, John B. 1987. "Social Security and Physical Quality of Life in Developing Nations: A Cross-Nat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
- Zapf, Wolfgang. 1980. "The SPES Social Indicators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250-69 in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edited by Alexander Szalai and Frank M. Andrews. London: Sage.